

KCC, 홍보역량 강화 “여론몰이”

언론인 영입에 홍보팀 확대개편 ...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집중

금강고려화학(KCC)이 현대그룹 문화실 부사장과 중앙언론사 대표를 역임한 중량급 인사를 홍보담당 고문으로 영입하고 홍보팀을 홍보 1,2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KCC는 11월28일 현대그룹 문화실 부사장을 지낸 이영일(59) 전 디지털타임스 사장을 홍보담당 고문으로 영입하고 기존 홍보팀을 홍보1팀과 홍보2팀으로 나눠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언론에 대한 정보와 자료제공 등 더욱 원활한 홍보업무 서비스를 위해 홍보팀을 1,2팀 체제로 개편 보강하게 됐다”고 밝혔다.

KCC의 홍보역량 강화는 최근 현대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CC는 홍보팀을 강화한 직후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볼 때 KCC의 재무상태는 A급 수준”이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Standard & Poor's(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잇단 등급하락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CC 홍보팀은 앞으로 정상영 명예회장에 대한 각종 루머와 도덕성을 집중 겨냥한 여론을 차단하는 작업과 함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신주발행금지처분 판결 이후 회사의 입장 등을 외부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12/01>